



서울대학교 농업생명과학대학

발행인 : 이화래, 편집인 : 인동환
 편집 : 대외협력·홍보위원회
 (김광수·김성배·김학진·류영렬·배의영·
 이창규·임상준·Hong Sok(Brian) Kim)

2014 새로운 시작의 설렘과 열정

입학식 개최



■ 3월 3일 오전 11시에 종합체육관에서 2014학년도 입학식이 개최되었으며 학사보고, 신입생 선서, 식사, 축사, 축가, 교가제창 순으로 진행되었다. 오연천 총장은 입학축사에서 “여러분의 초롱초롱한 눈빛에서 서울대학교의 희망과 대한민국의 미래를 본다”며 “여러분의 후배들에게 자신있게 우리의 소명을 이야기할 수 있는 자랑스러운 선배가 되기를 바란다”고 당부했다. 또한 “어른이 되었음을 자각하고 매사에 성숙한 태도를 가지도록 노력해야 하며, 대학에서의 공부는 스스로의 문제의식을 가지고 진리를 탐구하는 것이므로 배움에 있어 주체적 태도를 가져야 하고, 또한 서울대학교라는 학문공동체의 일원으로서의 책임을 듬뿍 누리라”고 강조했다. 올해 신입생은 학사과정 3,379명, 석사과정 1,739명, 박사과정 778명, 석·박사통합과정 766명 등 총 6,662명에 이른다. 농업생명과학대학 신입생은 학사과정 319명, 대학원과정 185명 등 총 504명이다.

새내기 새터



■ 우리대학 신입생들을 대상으로 한 새터가 2월 14일부터 3일 동안 강원도 속초 설악파인리조트에서 개최되었다. 각 과별 소개 및 새내기 환영 공연이 진행되었고, 학생회장단 소개와 교수님 소개가 있었으며 각 과별 다과회 시간을 가졌다. 3일 동안 선배들과 함께하는 새터를 통해 선후배 간의 정을 다지며 즐거운 시간을 보냈다.

제68회 학위수여식 개최



■ 서울대학교는 2월 26일 오후 2시에 종합체육관에서 전기학위수여식을 개최하였다. 이번 학위수여식에서 학사 2,591명, 석사 1,917명, 박사 624명 등 총 5,132명이 학위를 받았다. 오연천 총장은 축사를 통해 졸업생들에게 첫째, 공동선에 기여하는 국가관과 인간정신을 갖춘 것, 둘째, 다양성과 유연함을 중시하면서 창조적 사고를 통한 근원적 가치창출에 심혈을 기울일 것, 셋째, 세계 교양시민으로서의 자질과 역량을 갖춘 미래 인재로 나아갈 것 등을 당부했다. 우리대학은 학사 234명, 석사 122명, 박사 45명 등 총 401명의 졸업생이 학위를 받았다. 올해 수석 졸업자로 농경제사회학부 신성환 학생이 농업생명과학대학 대표로 최우수상을 수상하였다.

<주요내용>

1~3면_농생대 헤드라인
 9면_언론에 비친 농생대

4~5면_농생대 인사이드
 10~11면_기금출연

6~8면_Interview
 12면_농생대 사람들



노상하 교수



탁태문 교수

교수정년퇴임식

우리 대학은 3월 7일 대회의실에서 노상하 교수(바이오시스템 · 소재학부)와 탁태문 교수(바이오시스템 · 소재학부)의 정년퇴임식을 가졌다.

노상하 교수는 1980년 본교 농업생명과학대학 교수로 부임하여 농업기계전공 1세대 학자로서 선구자 역할을 하였다. 공학관련 기초 교과목 강의를 통한 농공학도들의 실력 향상, 농업기계관련 교재개발, 학문영역 정립 및 교과과정 정착에 기여하였다. 또한 대내외적인 학술활동 및 현장실무 교육을 통한 수확 후 농산물 처리 시설 보급에 공헌하여 농업과학기술분야의 최고상인 “농업과학기술상 근정포장(2002년)”을 수여 받았다. 학회활동도 활발히 수행하여 농업기계학회 및 산업식품공학회장을 역임하였으며, 우리나라 농업기계화를 위한 기술개발, 농업기계화 촉진법 제정 및 개정, 농업기계화 정책수립 등에 기여하였다.

탁태문 교수는 1981년 본교 농업생명과학대학 교수로 부임하였고, 31년 동안 막분리 기술 분야의 강의와 연구 및 학생지도에 전념하였다. 우리나라 최초로 물질을 분리할 수 있는 분리막에 대해 연구하고 발전시킨 권위자이며, 재직기간동안 70여 편의 연구 논문을 국내외 학술지에 게재하였고, 8개의 고분자 분리막 제조에 관한 특허를 출원하는 등 분리막 산업과 연구의 발전을 만드는데 크게 공헌하였다. 또한 한국 막학회 및 아시아 막학회 회장, 한국막학회 조직위원장 등을 역임하였으며, 위의 공로를 인정받아 과학기술분야 “대통령 표창(2004년)”을 수여받았다.

신임교수를 소개합니다.

박일권 교수(산림과학부)



박일권 교수가 2014년 3월 1일자로 산림과학부 산림환경학전공 부교수로 부임했다. 박일권 교수는 본교에서 학부, 석사 박사학위를 취득하였으며, 이후 국립산림과학원에서 임업연구사로 재직하였다. 주전공은 산림해충방제이며 산림병해충학, 산림보호학 등의 과목을 담당한다.

“1991년 본교 농생물학과에 입학하여 2001년도에 박사학위를 취득한 후, 국립산림과학원에서 산림해충방제 연구를 11년간 수행하였습니다. 연구기관에 있다가 모교에서 일할 수 있는 기회가 와서 무척 기쁘고 영광스럽지만 한편으로 크나큰 책임감도 느껴집니다. 학교가 아닌 곳에서 오랫동안 있다 보니 모든 것이 낯설고 어설피기만 합니다. 실형실 세팅, 연구과제 주수, 학생 지도 등 앞으로 해야 할 일들을 생각하면 머리가 멍해지기도 하지만 또한 새로운 도전이기에 학위 할 때의 초심으로 돌아간 것처럼 설레기도 합니다. 최선을 다하여 도전하는 삶을 살겠습니다. 훌륭한 여러 교수님들의 아낌없는 지원과 지도편달 부탁드립니다.”

하남출 교수(농생명공학부)



하남출 교수가 2014년 3월 1일자로 농생명공학부 식품생명공학전공 부교수로 부임했다. 하남출 교수는 본교 자연과학대학에서 학부과정을 졸업하고, 포항공대에서 석 · 박사 통합과정을 통해 박사학위를 취득하였다. 이후 Stanford Univ.에서 박사후 연구원으로 근무하였고, 2004년부터 부산대학교에서 교수로 재직하였다. 단백질 생화학 · 생물리를 이용하여 식품공학을 연구하며, 물리화학 등의 과목을 담당한다.

“본교 자연과학대학 미생물학과를 입학해서 정성없이 학부생활을 하다가 새로운 분야인 단백질 생화학을 배우기 위해서 1997년 정든 모교를 떠나게 되었습니다. 이후 포항에서 학위를 하고 미국서 박사후 연구원을 거쳐서, 부산대 약학대학에 등지를 틀었습니다. 처음엔 생소했던 약학이 10년이란 세월 덕택에 많이 익숙해졌지만, 그만큼 새로운 것에 대해 도전해 보고 싶은 열망도 함께 커졌습니다. 운이 좋게 모교에서 일할 수 있는 기회를 잡고 17년 만에 관악으로 돌아왔습니다. 훌륭한 여러 농생대 교수님들과 만나게 되어서 매우 기쁘고 영광스럽습니다. 또 더 잘해야겠다는 부담감을 가지고 더 열심히 일하겠습니다. 여기까지 많이 돌아왔지만 이제 농생대 발전을 위해서 농생대인으로서 살아갈 것입니다. 저의 여러 학문 분야에 걸친 경험을 농업생명과학 분야, 특히 식품공학 분야에 적용하여 이제까지 없었던 새로운 ‘물건’을 만들어 보겠습니다.”

서울대 구성원이 함께 즐기는 텃밭가꾸기, 스누팜(SNUFarm)

2011년부터 관악02번 마을버스를 타고 등교하는 길에 새로운 풍경이 나타났다. 기숙사 구관 근처 공터에 생긴 텃밭이 바로 그것이다. 이 텃밭은 기숙사에서 지원하고 서울대 채소농장 동아리 스누팜(SNUFarm)에서 운영하며, 학부생뿐만 아니라 모든 서울대 구성원이 직접 텃밭을 가꿀 수 있다. 스누팜의 텃밭을 통해 도시인에게 각광받는 ‘여가로서의 농사’가 서울대 내에서도 이루어졌다. 지금 이 순간에도 이곳 텃밭에서는 서울대 구성원이 키우는 채소가 자라고 있고, 농사에 대한 서울대 구성원의 관심도 커지고 있다.

삭막한 공터가 서울대 구성원의 텃밭이 되기까지 스누팜의 과거와 현재

학교 안에서 텃밭을 가꾼다는 생각은 원예생명공학전공 전공과목인 ‘채소학 및 실험(식물생산과학부 원예생명공학전공 전창후 교수 담당)’의 팀 프로젝트 과제에서 시작됐다. 팀 과제로 이론적인 내용만을 다룰 게 아니라 직접 텃밭에서 채소를 길러보자는 의견이 나왔고, 이 아이디어는 기숙사 측의 지원으로 실현됐다. 당시 신축 기숙사가 완공되면서 130여 평의 공터가 생겼고, 이 공터를 텃밭으로 만들도록 했다. 서울대 최초로 서울대 전 구성원에게 채소를 재배할 기회가 주어지는 스누팜 텃밭은 이렇게 시작됐다. 그러나 애초에 공사부지였던 공터는 커다란 돌과 시멘트, 파이프 등 각종 폐기물들로 가득했었다. 이에 굴삭기를 동원해 땅을 한 차례 개간해 구획 당 3평씩 총 33구획의 밭을 만들었으며, 이후 밭 양질의 노는 땅을 더 개간해 현재는 50구획의 밭을 마련했다. 폐허같던 부지가 3년 새에 서울대 구성원이 직접 가꾸어나가는 텃밭이 된 것이다.

스누팜 텃밭을 가꾸기 위해서는 봄과 가을 농사가 시작되기 전에 2~6명 규모의 팀을 만들어 분양을 받아야 한다. 50구획 중 6구획은 스누팜 운영진이 직접 가꾸고 나머지 44구획에 대해서 분양신청을 받는데 학부생부터 교직원까지 서울대학교 구성원이라면 누구나 가능하다.

도시에서 하기 힘든 귀한 체험이 농사에 대한 관심으로

스누팜 텃밭을 분양 받은 사람은 배정 받은 밭에서 퇴비를 뿌리고 파종을 하며 밭을 속아주고 채소를 수확하는 것까지 약 4개월간의 텃밭농사를 하게 된다. 분양받은 밭은 자율관리가 원칙이어서 분양을 받은 사람은 한 시기의 농사를 매조지 할 때까지 밭을 직접 관리한다. 그러나 스누팜은 다른



텃밭을 일구는 사람들

사람과 함께 농사를 짓는다는 매력 있다. 스누팜에서는 매주 토요일 오전 10시에 함께 모여서 농사의 각 과정에 해당하는 주요 작업을 한다. 2학기 연속 텃밭을 분양받은 성연주(사회학과 석사과정) 학생은 “스누팜 텃밭을 가꾸면서 옆 텃밭 사람들과 친해져서 더 좋았다”고 말했다. 특히 작년 가을에는 배추를 모두 수확하고 나서 다 같이 모여 김장을 담그고 그 김치로 수육파티를 열기도 했다. 스누팜 텃밭을 가꾸는 사람들은 주로 농사에 대한 흥미와 호기심, 그리고 여가활동의 하나로 이 일



스누팜 전경

을 시작한다. 스누팜의 밭을 분양받아 파종행사에 참여한 김민지(공업디자인 09) 학생은 참여계기가 무엇인지에 대한 질문에 “농사를 직접 지어 채소를 길러먹는 것이 어떤지 궁금했고 재미있을 것 같다”고 답했다. 참여 구성원은 농생대가 주축을 이루지만, 농생대인이 아닌 사람들에게도 경기도 등지에 있어 이용하기 어려웠던 주말농장이 학교 안으로 들어왔다는 것이 큰 매력으로 작용한다. 성연주 학생은 “농사를 전부터 하고 싶었지만 주말농장이 멀리 있었고, 학교 안에 텃밭이 생겨서 신청하게 됐다”고 말했으며, “남자친구와 새로운 데이트를 하게 되고 서로 공유하는 것도 생겨서 좋다”고 답했다. 이렇게 농사에 관심을 갖거나 재미를 얻기 위해 스누팜 텃밭을 분양받는 사람은 130여 명에 달한다. 지금도 기숙사 옆 작은 텃밭에서 농사에 대한 흥미와 관심이 서울대 구성원 사이에서 솟아나고 있다.

농생대의 비공식적인 지원이 있지만 더 많은 관심과 지원 필요해

스누팜은 현재 기숙사 동아리로 가등록 되어 있지만 채소농장답게 분양자가 타 단대에 비해 농생대 구성원이 많다. 뿐만 아니라 스누팜은 농생대 구성원의 비공식적인 지원과 도움을 받고 있다. 원예생명공학을 전공하고 있는 동아리원들은 퇴비 뿌리기부터 수확까지 텃밭 농사에 대한 여러 지식이나 방법들을 분양자와 동아리원에게 전수하고 있다. 또한 관련 전공의 동아리원과 농생대 대학원생 분양자를 통해서 종자를 공급받기도 한다.

하지만 서울대 내 최대 규모이자 최초의 채소농장 동아리임에도 농생대와 공식적인 연계나 농생대 구성원의 적극적인 참여가 없는 것은 다소 아쉽다. 농생대 측으로부터 비공식적인 지원은 있지만 스누팜이 정식 동아리로 등록되고 지금의 이 텃밭 가꾸기가 서울대 구성원의 여가로 자리 잡으려면 더 많은 지원이 필요한 실정이다. 또한, 농생대에 집중적으로 동아리원 모집 포스터를 게시했지만 이번 학기에는 신입 동아리원이 한명도 들어오지 않았다. 스누팜이 정식 동아리로 자리를 잡고 텃밭에 대한 운영을 꾸준히 해나가려면 새로운 동아리원이 필요하며, 특히 텃밭 가꾸기에 관한 지식들을 전해줄 수 있는 농생대 학생들의 관심은 더 절실한 상황이다. 스누팜은 비록 농생대와는 큰 관련 없이 진행되고 있지만, 최근 각광받고 있는 도시농업과 텃밭 가꾸기가 학교 안에서 자리 잡도록 했다. 서울대 구성원들이 자신이 생활하는 서울이라는 도시에서, 그리고 학교라는 공간에서 ‘농사’를 직접 접하고 농업에 대한 관심을 이끌어낼 수 있도록 하는 이 활동의 미래가 주목된다.



서울대 농업생명과학대학-서울교육청, 학교급식 식재료 안전망 구축 MOU

우리대학은 1월 21일 서울시 교육청과 '학교급식 식재료 안전성 강화를 위한 업무협약'을 맺었다. 양 기관은 이번 업무협약을 통해 학교급식 식재료 검사에 농약이 남아 있는지 확인할 수 있는 잔류농약 다성분 동시 신속 분석 방법을 도입해 학생들이 안심하고 먹을 수 있는 급식을 제공하는데 협력할 예정이다. 또 우리대학은 일선 학교와 학부도 대상으로 잔류농약에 의한 위해요소를 예방할 수 있는 방법 등에 관해 순회 교육을 시행하기로 했다.



한국식품산업협회 한국식품연구소와 업무협약 체결

식품바이오융합연구소(소장 장판식 교수)는 2월 13일 한국식품산업협회 한국식품연구소와 상호협력 체제구축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하였다. 업무협약 주요내용은 ▲ IT, BT, NT 분야의 융합 연구 과제 수행 ▲ 식품 관련 기업과의 기술 개발을 위한 산·학·연 네트워크 구축 ▲ 식품관련 종사자에 대한 교육프로그램 개발 및 운영 ▲ 식품 분석법의 표준화 ▲ 양 연구소의 국제적 지위 확보를 위한 국제 심포지엄 개최 등이다. 식품바이오융합연구소는 이번 업무협약 체결을 통하여 한국식품연구소와의 협력관계를 지속적으로 발전시키고, 대외 경쟁력 강화에 더욱 힘을 예정이다. 이번 체결식에는 식품바이오융합연구소 장판식 소장, 한국식품연구소 김명철 소장 등 관계자 6명이 참석하였다.



집행부 KYUSHU대학교 방문

이학래 학장을 비롯하여 집행부 교수(이상기 교무부학장, 전창후 학생부학장, 이승환 연구부학장, 안동환 기획부학장)들은 2월 21일 일본 KYUSHU대학교 농학부를 방문하였다. KYUSHU대학교 농학부의 주요시설과 학술실을 돌아보고 KYUSHU대학교에 남아있던 광복 전 남조선학술림에 대한 문서 등 귀중한 자료를 수집할 수 있었다. 또한 KYUSHU대학교의 교수들과 교류를 통해 농생대의 발전방향을 모색하고 앞으로의 학술 및 연구 협력을 위한 토대를 세우는 등의 성과를 거뒀다.



2014년 2월 학사졸업 우수학위논문상 시상

2월 24일 200동 대회의실에서 2014년 2월 학사졸업 우수학위논문상 시상식을 개최하였다. 우수학위논문상에 선정된 14명의 졸업생에게는 각각 상장과 상금 20만원이 수여되었으며, 우수학술지 논문게재에 해당되는 졸업생은 논문 게재료 100만원을 수여받았다. 이날 수상을 한 학생들은 아래와 같다.

〈우수학위논문상 수상자〉

김현애(식물생산과학부) / 이종수, 정현우(산림과학부) / 한재휘, 이기준(식품·동물생명공학부) / 김다연, 이량경(응용생물화학부) / 박다영, 김동근(조경·지역시스템공학부) / 김상호, 신성철(바이오시스템·소재학부) / 이경은, 김중대(농경제사회학부) / 홍성표(농산업교육과)

〈우수학위논문상 - 우수학술지 논문게재 수상자〉

정대호(식물생산과학부)



목운문화재단 장학금 수여식

2월 24일 200동 대회의실에서 목운문화재단이 주관하는 장학금 수여식을 진행하였다. 학장단 및 목운문화재단 설립자(한인규 명예교수), 목운문화재단 이사장(하종규 명예교수), 장학금 기부자와 학과 교수들이 참석한 가운데 총 17명(서울대 16명, 고려대 1명)의 학생들이 장학금을 수여받았다. 장학금은 학부생 200만원, 대학원생은 250만원씩 지급되었으며, 이날 장학금을 수여받은 학생들은 아래와 같다.

박상우, 최우리(식물생산과학부) / 강혜인, 박지수(산림과학부) / 박민우, 안수빈, 윤종원, 이수아, 정은선(식품·동물생명공학부) / 조성직(응용생물화학부) / 김계웅, 신영대(조경·지역시스템공학부) / 노현규, 박민경(바이오시스템·소재학부) / 홍종일, 허혜진(농경제사회학부) / 김건희(고려대 환경생태공학)



상록문화재단 및 일성장학금수여식

2월 25일 농업생명과학대학 203동 101호에서 서울대학교상록문화재단 및 일성 장학재단의 장학금 수여식을 거행하였다. 이날 행사는 장학금을 받는 학부생 39명, 대학원생 19명과 고등학생 6명, 그리고 동창회장 및 장학금 기부자와 학과 교수들이 참석하였다. 장학금으로 대학원생은 1인당 250만원, 학부생은 200만원, 고등학생은 100만원 씩 총 64명에게 1억 2,800만원이 전달되었다. 장학금을 출원한 선배들의 이름을 따서 장학금 명칭을 각각 만들어 장학금 출원자가 직접 학생들에게 전달하는 것으로, 상록문화재단만이 가지는 독특하고 뜻 깊은 행사로 진행되었다. 수여식이 끝나고 참석자 전원은 두레미당에서 축하 오찬을 가졌으며 고등학생들은 점심 식사 후 농업생명과학대학(200동) 입학진로정보실에서 농업생명과학분야의 비전에 대한 안내를 받았다. 이날 장학금을 수여받은 학생들은 아래와 같다.

〈상록문화재단장학금〉

신혜선, 오정민, 정대호(식물생산과학부) / 이성진, 김종화, 정현우(산림과학부) / 김우람, 김진우, 사공연정, 원소영, 오종남, 허유경(식품·동물생명공학부) / 박미성, 박수빈, 신지영, 이진, 장동민, 전정석, 이유정, 김정은, 김지현, 이아름, 김상훈(응용생물화학부) / 길민지, 윤푸른, 민슬기(조경·지역시스템공학부) / 박성훈, 한성민, 김민지(바이오시스템·소재학부) / 양진수, 김현규, 소지섭, 김재희, 고영진(농경제사회학부) / 손규태, 최나영(농산업교육과) / 이효진(바이오모듈레이션 전공) / 김홍재, 엄태인, 김희승(수원농생명과학고등학교) / 편하영, 최부미, 김지나(청양고등학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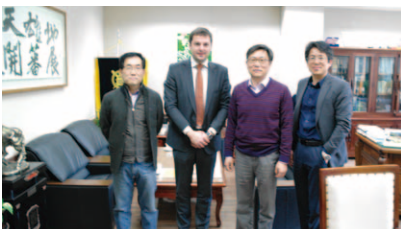
〈일성장학금〉

이우빈, 김수현, 서정환(식물생산과학부) / 여동건, 신재호, 이소영(산림과학부) / 임완중, 이서연(응용생물화학부) / 허민주, 이상익, 손은신(조경·지역시스템공학부) / 최세은, 김영호, 정세웅(바이오시스템·소재학부) / 김신혜, 박선진, 정태영, 박형호(농경제사회학부) / 김지성, 최화영(농산업교육과) / 김영임(바이오모듈레이션 전공)



서울대학교 총동창회장상 전수식

2월 26일 농업생명과학대학 학장실에서 “서울대 총동창회장상” 전수식을 가졌다. “서울대 총동창회장상”은 재학기간 동안 학업성적이 우수하고 봉사활동에 있어서 탁월한 지도력을 발휘하여, 건전한 학풍과 모교발전에 기여함으로써 다른 학생의 모범이 된 학생에게 주는 상이다. 올해 수상자는 식품·동물생명공학부 권용성 졸업생이며 상장과 부상을 수여받았다.



벨기에 Gembloux Agro-Bio Tech, University of Liege 국제교류 담당자 농생대 방문

3월 21일 벨기에 Gembloux Agro-Bio Tech, University of Liege의 국제교류 담당자가 농생대를 방문하였다. 집행부와 의 간담회를 통해 양 대학간의 학술교류 및 연구 협력 등을 논의하였으며, 농생대 부속시설인 농생명과학공동기기원(NICEM)을 둘러보았다.



서울대학교 평창인재장학금 수여식

3월 28일 평창캠퍼스 대회의실에서 “서울대학교 평창인재장학금” 수여식을 진행하였다. “서울대학교 평창인재장학금”은 강원도 평창군의 우수한 인재를 글로벌 리더로 육성하여 지역사회 발전과 국가 발전에 기여하고자 서울대와 평창군의 협력사업의 일환으로 추진되었다. 첫해인 2014년 수상자는 응용생물화학부 김준수, 산림과학부 서용삼 학생이며, 이날 행사에서는 이학래 학장을 비롯하여 조성인 평창그린바이오 과학기술연구원장, 이석래 평창군수, 함명섭 평창군의회 의장 및 김준수, 서용삼 학생의 가족이 참석하였다.

지식의 보고(寶庫), 농학도서관을 방문하다

농업생명과학대학의 부속기관 중 학생들이 가장 많이 이용하는 곳을 꼽자면 바로 이곳이 아닐까 싶다. 이번 호에서는 관악산의 산자락과 계곡을 옆에 두고 위치해 있는 '농학도서관'을 탐방해 보았다.

자료 제공과 학습의 공간, 농학도서관

서울대학교 농학도서관(이하 농학도서관)은 수원고등농림학교의 도서관을 모체로 하여 1946년 8월 22일 개관하였다. 이후 2003년 11월까지 수원캠퍼스에 위치하다가, 캠퍼스종합화에 따라 2005년 2월 22일 관악캠퍼스 75-1동(농업생명과학대학 200동 건물 옆)에 신축 이전하여 현재에 이르고 있다. 농학도서관은 농생대의 부설도서관으로서 연구 자료를 제공하고 교육과정을 효과적으로 지원하기 위해 노력해왔다.

우선 농학도서관에는 광범위한 기본서는 물론 교양도서부터 전공 관련 자료에 이르기까지 다양한 자료가 구비되어 있다. 현재 장서 수는 약 16만 권, 전자저널은 약 10만 종에 이르며, 이밖에도 연속간행물, 비도서 자료, 고문헌자료 등이 있다. 이용자의 요구를 충족시키기 위해 도서 구입도 꾸준히 하고 있다. 이용자가 구입을 희망하는 도서가 있을 경우 온라인으로 신청이 가능하며, 연구용 추천도서는 최대한 빠른 시일 내에 구입, 제공하려고 노력하고 있다. 또한 서울대학교에서 소장하고 있지 않은 도서와 논문은 기관 간 대출 및 복사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으며, 신간 학술지가 입수되면 목차서비스를 제공하여 연구에 도움이 되도록 하고 있다. 중앙도서관과 시스템을 연계하여 다양한 정보 자료를 연구실과 정보검색실 등의 PC로 제공하고 있고, 최근에는 E-book이나 스마트 기기를 통한 서비스 확대도 검토 중에 있다.

도서와 자료 제공 이외에도 농학도서관은 학습공간을 제공하여 면학분위기를 조성하는 기능을 하고 있다. 이를 위해 1층 자료실에는 129석, 지하 1층 상록열람실에는 210석 규모의 열람 공간을 제공한다. 특히 1층 자료실의 경우 탁 트인 유리창으로 관악산의 자연 풍경이 내다보여, 어느 곳보다도 쾌적한 환경을 자랑하고 있다. 지역사회에 기여하기 위해 상록열람실은 별도의 제한을 두지 않고 개방함으로써 누구나 와서

학습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작년에는 학생들이 공동과제를 수행할 수 있도록, 빔 프로젝터와 스크린이 설치된 공동학습실을 마련하기도 하였다. 이러한 노력에 힘입어 농생대 학생을 비롯한 많은 이용자들이 농학도서관을 찾고 있다. 농학도서관의 2013년 집계된 연간 대출 책 수는 총 11,310권에 이르며, 연간 총 이용자 수는 18만 명을 넘었다. 지하 1층의 공동학습실도 널리 알려져 현재는 하루 평균 5~6팀이 이용하고 있다고 한다.

현재 농학도서관은 다각적인 측면에서 내실을 다지기 위해 노력하는 중이다. 보다 편리한 이용을 위하여 자동화 시스템을 구현하고 열람실 환경을 지속적으로 개선하고 있다. 최근에는 이무하 교수가 학장으로 있는 에티오피아의 아다마대학에서 도서 기증을 요청해 오며 따라, 200여 권의 농학 관련 서양서를 수집하여 발송 준비 중에 있기도 하다. 농학도서관장 이준호 교수는 “학생들이 구입희망도서 신청을 보다 적극적으로 해줬으면 좋겠다.”면서 “농생대 학생으로서 자부심을 갖고 농학도서관을 더욱 활발히 이용할 수 있길 바란다.”고 당부하였다.

탐방 후 느낀 점

농학도서관을 자주 애용하고 있는 입장에서 농학도서관의 쾌적한 환경을 위해 노력하시는 직원 분들께 새삼 고마움을 느꼈다. 유리창으로 관악산 계곡이 내려다보이는 농학도서관의 1층 자료실만큼 공부하며 휴식을 취하기 적합한 곳은 없을 것이다. 앞으로 농학도서관에 더욱 자주 가서 공부도 하고 책도 많이 읽겠다고 다짐해본다.

농생대 학생기자단 제2기 박수범



농학도서관장 이준호 교수

[농학도서관 연혁]

- 1906년 수원고등농림학교 도서관 개관
- 1946년 국립서울대학교 농과대학 도서관으로 명칭 변경
- 1971년 수원캠퍼스 농학도서관 건물 신축 준공
- 2005년 관악 캠퍼스로 이전 개관

[서울대학교 농학도서관]

151-921 서울특별시 관악구 관악로 1 서울대학교 농업생명과학대학 내 (75-1동)
TEL 02) 880-4774 / FAX 02) 884-0182
<http://aglib.snu.ac.kr>

막걸리의 전통을 트렌드로 만들어 낸 “월향” 대표 이여영 동문을 만나다.

제 2의 직장, 나만의 링을 만들어내다



월향 이여영 대표는 2000년에 생물자원공학부(현재의 바이오시스템·소재학부)에 입학했다. 그만큼 이 대표는 젊은 CEO고 ‘도전’과 ‘치열함’만을 무기로 삼은 채 성공을 거뒀다. 3년 만에 절반의

가게가 폐업한다는 요식업계에서 젊은 나이에 자본금 4,000만원으로 2010년 처음 월향 1호점을 시작한 이후 4년 만에 자본가치 150억 원에 달하는 주식회사를 일궈냈다. 하지만 이여영 대표가 처음부터 문화를 파는 ‘막걸리 CEO’로 사회에 발을 내딛은 것은 아니었다. ‘대학생으로서 해볼 수 있는 것은 전부 다 해봤다’고 자부할 만큼 다양한 일을 한 대학생활 직후 일하게 된 곳은 전공과는 무관한 ‘신문사’였다. 뜻밖이었지만 자신의 일을 좋아하지 않은 것은 아니었다. “기자로 지낸 5년 동안 일에 빠져 휴일도 반납한 채 기사를 써냈다”고 말할 만큼 회사에 열정을 바쳤고, 우수 기자상도 받을 만큼 남에게도 인정을 받았다. 하지만 어느 날 개인 블로그에 올린 글로 인해 회사로부터 해고됐고, 한순간에 5년간의 기자생활을 접어야 했다.

“마치 지하 27층에 던져진 느낌이었다”고 말할 만큼 당시 받았던 충격은 컸고, 3개월간 힘든 시간을 보냈다. 다시 일을 해야겠다고 결심했지만 회사로 돌아가고 싶은 마음은 없었다. 대신 창업으로 눈을 돌렸다. “남이 만들어 놓은 링 안에 갇히는 것이 싫었다”며 “나만의 링 속에서 나를 위해 일하고 싶었다”고 당시를 회상했다. 2010년 2월 자본금 4,000만원을 가지고 월향 1호점을 개업했고 ‘막걸리’ 열풍을 탄 덕에 빠른 속도로 성장했다. 같은 해 월향 2호점을 낸 것을 시작으로 이태원점과 오사카점까지 확장을 거듭했다. 새로운 사업아이템으로 선택한 와인 역시 ‘대박’을 쳤다. 와인포차 ‘문샤인’은 홍대점을 비롯해 이태원, 대학로, 역삼동에서도 매장을 열었고, 업계 내 판매병수 1위를 달성할 만큼 큰 성공을 거뒀다. 빈손의 해직기자가 단숨에 성공한 CEO가 된 것이다.

세상을 바꾸는 기업이 되고 싶다

월향을 찾은 손님들은 고품질의 막걸리, 친절함 서비스 그리고 고급스러운 안주에 크게 만족하고 돌아간다. 하지만 월향의 성공에는 이여영 대표의 확고한 경영철학 역시 큰 역할을 했다. 이 대표는 월향의 핵심가치로 ‘전통이 트렌드’라는 점을 들었다. 막걸리와 고급 안주를 결합시켜 대박을 일궈낸 데에도 이 철학에 대한 확신 있는 믿음이 큰 영향을 줬다. ‘동반성장’ 역시 중요한 가치다. 이 대표는

“악한 여럿이 뭉쳐서 이기고 싶었다”며 “사원과 회사가 함께 커가는 회사를 만들어 가고 싶다”고 말한다. 마지막으로 ‘사람들의 삶에 녹아있는 회사’를 강조한다. 이 대표는 “실제로 월향의 재료비 비율이나 음식 퀄리티는 호텔에 뒤처지지 않는다”며 “이를 통해 월향에 찾아오는 고객들의 라이프스타일 수준을 한 단계 높이고 싶다”고 말했다.

자그마한 가게였던 월향이 150억 원의 자산 가치를 지닌 기업으로 커가는 동안 이 대표가 순탄한 길을 걸어온 것만은 아니었다. 이 대표는 “너무 치열하게 살아와서 무슨 일이 있었는지 기억조차 잘 안 난다”며 지난 5년을 회상했다. “그나마 기억에 남는 것이 오사카점을 개업한 것이다”며 “삼성전자조차 철수한 일본에서 월향을 통해 성공을 거두고 싶었기 때문이다”고 당시를 떠올렸다. 걸어온 길은 희미해졌지만 이 대표가 달성하고자 하는 목표는 뚜렷했다. 우선 월향을 1,500억 원이 넘는 돈으로 모건 스탠리가 인수한 놀부를 뛰어넘는 기업으로 만드는 것이다. 월향이 미술관 레스토랑에 올라가는 것도 꼭 이루고 싶은 목표다. 이 대표는 “목표를 달성하고자 하는 것이 돈 때문은 아니다”며 “목표를 세우고 달성해가는 과정에서 더 큰 기쁨을 느낀다”고 말했다.

후배들에게 한 마디

이여영 대표는 농생대 후배들에게 “학교의 틀을 버리고 자기 자신을 생각할 수 있는 시간을 가져야 한다”며 “나의 원칙을 세우고 사는 삶이 중요하다. 남이 정해 놓은 규칙이 아닌 나만의 삶을 살아가는 것이 재미있는 삶이다”라고 덧붙였다. 더불어 ‘서울대’라는 이름이 때로는 자산이 아니라 부채가 될 수 있음을 경계해야 한다고 강조한다. ‘서울대 학생’이라는 생각이 개인이 상상할 수 있는 미래의 자신을 좁게 만들었던 것을 경험했기 때문이다. ‘전통이 트렌드’라는 가치에 맞게 내부 구조부터 분위기까지도 막걸리와 현대적인 감각이 잘 조화되어 있는 월향 1호점에서의 이여영 대표와의 만남은 값진 시간이었다.

농생대 학생기자단 제2기 최은국



월향 입구



월향 전경

CALS Newsletter의 교수 릴레이 도서 추천

그 여덟 번째 주인공은 조경학 전공에서 통합 환경설계 및 조경이론을 연구하고 있는 배정한 교수!

배정한 교수는 본교에서 학부를 마치고 동 대학원에서 석사 및 박사학위를 취득하였다. 미국 펜실베이니아대학교 디자인대학원에서 박사 후 연구원을 마치고 단국대학교 환경조경학과 교수, 삼성건설 디자인 네트워크 자문위원을 지낸 후, 2007년도부터 우리 대학 조경학 전공 교수로 임용되어 학생들을 가르치고 있다.

배정한 교수는 조경학을 전공으로 선택한 이유로, 조경학과와 교과과정이 자연계열 중에서는 가장 인문/사회계열 또는 예술계열에 가까웠다는 것을 들었다. 그리고 조경(landscape architecture)의 창의성과 통합적 정신에 매력을 느낀 것이 또 다른 이유였다. 현재는 조경, 건축, 도시를 아우르는 통합적 환경설계의 이론적, 실천적 전략의 하나로 '랜드스케이프 어바니즘' (landscape urbanism)에 초점을 두고 연구하고 있다. 또한 용산 미군기지 공원화 구상, 행정중심복합도시 경관계획, 행정중심복합도시 중앙녹지공간 국제설계공모 관리, 마곡 워터프론트 국제현상공모 지침 작성, 광고 신도시 호수공원 국제설계공모 관리, 용산공원 종합기본계획, 용산공원 설계 국제공모 진행 등 통합적 디자인 프랙티스(design practice)에 적극적으로 참여하면서 이론과 실천의 교집합을 확장하고 있는 중이다.

이외에도 조경설계, 조경이론, 현대조경(사)론, 조경미학, 조경비평, 환경미학을 아우르는 연구의 장에 비판적이고 실험적인 앵글로 접근하면서 통합적 설계 사고와 그 실천의 방법론을 모색하고 있으며, 다수의 출판 및 대안적 네트워크 활동을 통해 조경의 지평을 확장하고 사회적 쟁점을 생산하고 있다. 최근에는 월간 '환경과조경 laK'의 편집주간을 맡아 저널리즘을 통해 조경 이론과 비평을 실천하는 일에 매진하고 있는 중이다. 마지막으로 배정한 교수는 농생대 학부생에게 하고 싶은 말로, 문제의식과 비판정신, 실험정신과 상상력을 갖기를 강조하였다.



배정한 교수
(조경·지역시스템공학부)



〈좋은 이별(김형경 저, 사람풍경, 2012)〉

배정한 교수가 추천한 책은 김형경의 『좋은 이별』. 이 책은 전작 『사람 풍경』과 『천 개의 공감』으로 잘 알려진 소설가 김형경의 세 번째 심리에세이다. 책은 총 네 개의 장으로 구성되어 있다. 첫 번째 장은 애도라는 개념이 언제 탄생하여 어떻게 발전해왔는가를 사례 중심으로, 개괄적으로 소개하고 있다. 이어지는 세 장에서는 애도 심리의 실제와 그에 따르는 실천법들이 소개된다. 인간의 마음과 관계의 문제를 탐구해왔던 저자는 책에서 이별로 절망하는 우리에게 이별의 시작부터 끝까지, 그 사이에 일어나는 감정과 행동의 모든 층위를 세밀하게 보여준다. 그리고 이별로 인한 마음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실천적인 방안으로 '애도' 작업을 제시한다. 상실의 내면을 들여다 보고 충분히 슬퍼한 뒤 그 속에서 빠져 나오는 '애도'가 슬픔을 치유하고 새롭게 태어날 수 있는 본질적인 해결책

이라는 것이다. 저자는 애도 개념에 대해 다음과 같이 서술하고 있다.

“애도 작업은 내면에서 작동하는 낡은 삶의 플롯, 어린 시절에 머물고 있는 내면의 자기를 함께 떠나보내는 일이다. 그 과정에서 치유와 성장이 자연스럽게 뒤따른다. 애도 작업을 잘 이행하면 자기 자신을 잘 알아보게 되고, 새롭게 태어날 수 있게 된다. 자기를 알아볼 수 있으면 타인도 잘 알아보게 되어 타인에 대한 이해와 공감 능력이 커진다. 애도 과정이란 인간이 경험할 수 있는 감정의 모든 영역을 두루 체험하는 일이기 때문에 그 과정을 지나오면 정서적으로 확장되는 것을 느낄 수 있다. 더불어 삶의 다양한 국면에 대한 이해력이 커진다.”(50쪽)

배정한 교수는 2013년 봄, 뉴질랜드 출장길의 오고가는 비행기에서 이 책을 읽었다고 한다. 김형경의 전작 『사람 풍경』을 읽고 깊이 공감하고 있었던 것이 『좋은 이별』을 읽게 된 계기였다. 배정한 교수는 추천 이유를 이렇게 말한다. “많은 대학생들은 다양한 종류의 이별과 상실을 경험한다. 그들뿐만 아니라 우리 모두는 끊임없이 무언가를 떠나보내면서 살고 있다. 슬픔을 비롯한 우리 마음의 많은 문제는 바로 이러한 이별에 잘 대처하지 못하는 데서 생긴다. 슬픔을 회피하기보다는, 그것을 받아들이고 '애도' 하는 과정에서 우리는 스스로를 치유하고 성장할 수 있다. 이별의 후유증을 앓는 20대의 대학생들에게 이 책은 직접적인 도움이 되는 마음 처방전이 될 것이라고 생각한다.”

〈다음 호의 도서 추천 주인공은?〉

『좋은 이별』을 추천해 준 배정한 교수에게 다음 호의 주인공을 추천해달라고 부탁하였다. 그가 추천한 주인공은 농경제사회학부(농업·자연경제학전공)에서 농업정책 및 농업통상을 연구하고 있는 임정빈 교수. 임정빈 교수의 추천 도서는 다음 호에 공개!

〈뉴스메이커 2014.2.6.(목)〉

종자산업이 창조경제 시대의 신 성장동력 산업으로 거듭나야

(황인상 전문기자) = 석유 파동보다 더 무서운 것은 식량 파동이다. 실제로 국제 곡물 가격은 요동을 치고, 크고 작은 식량 위기의 조짐은 세계 곳곳에서 벌어지고 있다. 이에 우리나라 신(新) 산업지도 완성에 대한 최종 답은 농업 분야에서 찾아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농업은 1차산업이지만 고도의 과학기술과 연계되면 그 자체가 최첨단산업이 될 수 있다. 그래서 미래학자들은 농업을 6차산업이라고 부른다. 현대 농업은 전통적인 생산 방식에서 벗어나 양과 질의 동시 발전을 꾀하고 있다. 정보기술(IT)과의 융합은 기본이고, 바이오·나노·환경기술과의 융복합을 통한 고부가가치 농업으로 나아가고 있다. 이것이 '농업의 6차산업화'다.

국가 원천기술의 기반 마련하다

서울대 식물분자유종사업단의 행보가 화제다. 지난 2011년부터 2020년까지 독자적 종자와 종자개발기술 확보를 위해 설립된 식물분자유종사업단은 세계 최초 고추 탄저병 저항성 품종을 개발했으며 이로 인해 연간 1,000억 원 이상의 피해 감소 및 고추 종자의 수출증가, 농약사용 감소를 통한 안전한 먹거리가 제공될 것으로 전망된다. 사업단을 이끌고 있는 고희종 박사는 "주요 작물에서 유전체, 유전자, 분자표지 및 QTL정보를 개발, 전통육종의 기반 위에 분자표지와 형질전환을 이용한 분자유종 기반을 확립하고자 한다"며 "이와 함께 신종자 육성기술을 세계수준으로 발전시켜 초다수, 고품질, 고기능성, 내병성, 기후변화 대응 등 우수품종 육성을 지향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설립 이후 사업단은 국가 원천기술 기반을

마련하고 생명공학의 실용화, 미래 선도기술의 개발, 인프라구축과 그 지원사업을 위해 만전을 기하고 있으며, 현재 다양한 유전변이 창출 기술과 유전자 선발 기술 연구를 수행하고 있다. 고희종 박사는 "이번 연구는 식물의 부적합 온도 저항성을 증진시키고, 기능성을 강화하며, 산업화를 통한 고부가가치 스트레스 내성 작물을 개발하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식량안보를 위한 품종개발에도 심혈을 기울이고 있다. 그 결과 기능성이 강화된 품종(수퍼자미, 큰눈자미, 서늘17호 등)·다수성품종(화원6호)을 개발했으며 옥수수, 가공용 품종(오류팝콘)·밀의 복합저항성품종(트랜스) 및 내수발아 제빵용 중간 모본 등을 육성 출원했다. 아울러 야생벼 특성 이입 계통, 벼 일대잡종용 친 계통 예비선발 등 총 당초 목표를 초과달성하는 성과를 거두고 있다. 종자 산업을 위한 신품종 개발도 주목할 만하다. 고추에서 탄저병 저항성을 야생종으로부터 도입하여 세계 최초 탄저병저항성 고추 F1 품종을 육성한 것이다. 뿐만 아니라 불과 2년여의 짧은 기간에도 불구하고 사업단은 지금까지 99편의 SCI논문과 26편의 비SCI 논문을 발표하는 한편, 성과물 중 6건을 유상기술 이전함으로써 3억 원 이상의 유상 기술료를 발생시키기도 했다.



고희종 교수

〈NSP통신 2014.2.6.(목)〉

“광양 백운산 고로쇠수액, 전국 명성 이어간다”

(전남=NSP통신 홍철지 기자) = 광양시가 오는 11일까지 서울대학교 남부 학술림과 광양 백운산고로쇠 영농조합 합동으로 고로쇠수액 채취 농가의 위생관리 점검을 통해 광양고로쇠의 안전성과 품질로 전국적인 명성을 이어갈 계획이다. 이를 위해 시는 지난 1월 고로쇠수액 채취 295농가를 대상으로 수액채취 관리지침 교육을 실시하고 현지 확인·점검을 위해 방면별로 4개 점검반을 편성했다.

이번 위생관리 점검에서는 고로쇠 수액을 채취하는 주선은 물론 지선에 대해 사전 소독 여부와 집수통 청결상태 등을 집중 점검할 계획이다. 위생관리 상태가 기준에 미달되는 경우 수시로 수액시료를 채취해 전문 분석기관에 조사를 의뢰하고 '부적합' 판정이 날 경우 수액채취 및 판매 중지 앞으로 1년 이상 수액채취 허가 금지 등의 강력한 조치를 취할 방침이다.

시 관계자는 "전국 제1의 고로쇠수액의 명성과 농가소득을 안정적으로 창출하기 위해서는 수액채취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안전·위생상의 문제점을 면밀히 진단하고 사전 대책을 통해 해소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말했다.

한편 광양 백운산 고로쇠 수액은 특허청에 특허상표로 등록(제0455563호) 및 산림청 지리적 표시등록 제16호로 지정된 가운데 년 30억 원 이상 생산·판매되고 있다.



〈MK뉴스 2014.2.9.(일)〉

“서울농대도 창업콘테스트 첫 실시”

(윤진호 기자 / 김시균 기자) = 서울대 농대가 산하 창업지원센터와 함께 학부생들을 대상으로 창업 경연대회를 열어 대학생 창업 의욕을 고취시킨다. 벤처 창업을 접할 기회가 적었던 농대 학생들에게 창업을 교육하는 프로그램이다.

9일 서울대에 따르면 이 대학 농업생명과학대학은 3월부터 창업 경진대회 프로그램을 시작한다. 다듬어지지 않은 아이디어를 갖고 있거나 창업에 관심 있는 학생이라면 누구나 지원할 수 있다. 서류심사에 합격한 학생들

에겐 사업을 이해할 수 있는 교육과 함께 아이디어를 다듬고 구체적인 계획을 세울 수 있게끔 전문가들이 컨설팅을 해줄 계획이다.

서울대 농대가 1946년 설립된 이후 대학 차원에서 학생들에게 창업 교육을 시킨 적은 한 번도 없었다. 3월에 시작될 창업 경진대회는 오는 6월 최종 수상자를 선정하게 된다.

서울대 농대는 경진대회에 참가한 학생 중 실제로 창업하고자 하는 학생들에게 투자자 연결·사무실 제공 등 편의를 제공한다는 방침이다.



아름다운 기부

3월 28일 故이육진(바이오시스템 · 소재학부, 01입학)씨의 부모님(이종윤 선생님, 김덕연 여사)께서 가정형편이 어려운 학생에게 장학금으로 써달라고 농업생명과학대학 교육연구재단에 3천만원을 기부했다.

아버님은 “육진이는 어려운 가정에서 태어나 누구보다 근면 성실하게 살았으며 재학시절에도 성적우수장학금(4회) 및 송천재단장학금(2회) 등으로 학비를 마련하여 가정에 걱정을 안 시킨 효자이며, 늘 본인이 받은 장학금 혜택을 다른 사람에게 돌려줘야 하겠다고 말해 이렇게 기부하게 되었다”고 말했다.

故이육진씨는 2001년도에 바이오시스템 · 소재학부에 입학하여 2008년에 졸업하였고, 이후 카이스트 대학원에 진학하였다. 2011년 한국전력연구소의 연구원으로 농학도로서의 꿈을 펼치려는 시기에 불의의 교통사고로 유명을 달리하였다.

기부금은 고인의 유지에 따라 성적이 우수하고 가정형편이 어려운 학생을 선발하여 4년간 전액 장학금으로 지급 될 예정이다.

故이육진

(바이오시스템 · 소재학부, 01입학)

농생대 기금출연 소식

[농생대 발전기금 출연안내]

농생대 교육연구재단 전화 : 02)880-4510

농생대 홈페이지 : <http://cals.snu.ac.kr>

기금 출연해 주신 분들

다음은 지난 2014년 1월 1일부터 2014년 3월 31일까지의 기간동안 우리 대학에 기부해 주신 분들입니다.

기금출연 (2014. 01. 01 ~ 2014. 03. 31.)			누적금액 : 67,500,000원	
1000만원 이상	100만원 이상	10만원 이상		
졸업생 故이육진 30,000,000	㈜고추와 육종 6,000,000	KBS드라마극 500,000		
녹색지도자최고위과정 25,000,000	코리아시스템 3,000,000			
	㈜한성 T&I 2,000,000			
	우상규 1,000,000			

기금출연(2000. 01. 01 ~ 2013. 12. 31)					누적금액 : 5,166,000,000원	
(유)PPG코리아	강미정 농가정학	김동암 (52)축산학	김인식 (64)농학	동 문 (71)농화학		
(재)목운문화재단	강병철 (86)원예학	김동윤 (48)농경제학	김정원 서울대직원	동화특수산업㈜		
(재)유연정학회	강석근	김동태 (62)농경제학	김정현 (75)농화학	류관희 (63)농공학		
(주)녹색식물연구소 (78)원예	강신백 그린바이오과학기술연구원 교직원	김명종 (70)임산공학	김종무 (59)농학	류덕희 (주)경동제약 대표이사		
(주)프로셀코리아	강예안 학부모	김무열 (64)농공학	김진모 (81)농업교육	류순호 (55)농화학		
(주)내츄로바이오텍	강창희 (66)농경제학	김민균 (82)농화학	김진우 (2006)산림과학부	무명 (55)농공학		
(주)넥스캡	고 강석권, 고 최하자 유족	김병동 (62)농학	김진의 (59)축산학	문성훈 (86)식품공학		
(주)생명의나무	고 이은웅 교수 유족 (72)농경제학	김병영 예비랜드사장	김태수 (66)임학	문지애 (77)식품공학		
(주)서울신문사	고종열 (87)축산학(박사)	김상곤 농업교육	김현중 (83)임산공학	문태화 (71)식품공학		
(주)숲에서	고희중 (76)농학	김상돈 (44)축산학	김호택 (58)농경제학	바이오사이드테크		
(주)신농	고희중, 김성남, 안희성, 노희명 기부보험 만기액	김석구 (55)임학	김희발 (86)동물자원과학	박관화 (62)농화학		
(주)아데나	광주MBC	김성배 (85)농생물학	나승일 (81)농산교육	박기주 (69)농업교육		
(주)케이티앤에프	구자환 (81)농학	김성수 (63)농업교육	노희명 (76)농화학	박낙희 (83)농업교육		
(주)하이식	국제연합식량농업기구(FAO)	김성일 (76)임학	농생대 기획실	박수철 (82)산림자원		
(주)엘씨에스	권숙환 학부모	김수민 (2003)환경재료과학	농생대 동창회	박사우 (65)농생물학		
53학번 동기회	권정혁 (60)농학	김영권 농학	농생대 수목원	박원규 (60)농공학		
59학번 동기회(재미회원)	권 철 (59)축산학	김영도 (68)축산학	농생명과학연구정보센터	박은우 (73)농생물학		
69학번 동기회	김경목 (68)농공학	김영배 (85)축산학	농업생명과학연구원	박정현 (64)농업교육		
69학번 여성동기회	김관수 (82)농경제학	김영복 (72)농공학	농업생물신소재연구소	박종국 (57)농화학		
70학번 동기회	김광호 (68)식품공학	김영성 (58)농학	농학과 동기회	박창서 (61)농경제학		
71학번 동기회	김국형 (83)농생물학	김영성 (59)농경제학	농협중앙회	박창호 (58)임학		
81학번 원예동문동기회	김규옥 학부모	김영호 (73)농생물학	농화학 동문회	박필선 (90)산림자원학		
가나바이오텍(주)	김근숙 농화학	김유용 (83)축산학	도은회 (61)농화학	박효근 (59)농학		
간접연구경비회계지원금	김기선 (74)원예학	김유용, 윤원희	동 문	반성환 (50)농경제학		

기금출연(2000. 01. 01 ~ 2013. 12. 31)

배동걸	윤용인 (57)농가정학	이준호 (74)농생물학	㈜녹색식물연구소	최고농업정책과정 14기
백남천 (81)농학	윤원희 김유용교수부인	이중용 (77)농공학	㈜누보	최고농업정책과정 15기
백중현 (79)임산가공학	윤익건설	이철영 한백과학 대표	㈜밀투밸런스	최상호 (78)식품공학
부경생 (60)농생물학	윤해정 (90)임산공학	이철우 (61)농경제학	㈜바이오포아	최연홍 (56)잠사학
브이에프티	윤희진 (62)축산학	이춘만 (73)임학	㈜베스트텍코리아	최윤재 (73)축산학
서문원 (74)농학	이건호 (67)농경제학	이충한 (2009)동물생명공학	㈜블루비에스	최인규 (80)임산공학
서민영 서울대직원	이경국 (78)	이태호 (74)농경제학	㈜블루인바이로먼트엔텍	최정우 외 (2000)생물자원공학부
서병륜 (69)농화학	이광희 (75)농학	이필우 (53)임학	㈜비르엔마이크로	최진용 (84)농공학
서울신문사	이기훈 (91)천연섬유	이한강 (69)임학	㈜비비씨엔에프	최학근(최윤희 학부모) (10)응용생명
서진호 식품생명공학 교수	이내수 (58)농경제학	이현수 (60)농화학	㈜삼우종합건축사무소	최홍림 (71)농공학
서학수 (65)농학	이돈구 (65)임학	이형주 (66)농화학	㈜생명과학기술	투플러스코스팜㈜
성로경 학부모	이동근 (82)조경학	이 홍 (70)농화학	㈜센소메트릭스	패션푸드㈜
손정익 (75)농공학	이동찬 (82)농공학	이희석 (57)농생물학	㈜숨에서	프로캘코리아
식물분자유전육종센터	이두이 (66)농학	이희재 (78)원예학	㈜신택	피타코이드㈜
신재익 (60)농화학	이득용 (52)농경제학	일본동문회	㈜싸이퍼인텔리전스	하종규 (75)축산학
신젠타코리아㈜	이명훈 (69)농경제학	임경순 (54)축산학	㈜씨에스텍	한국마사회
신한풍 (59)농학	이무하 (67)축산학	임승빈 조경학 교수	㈜아테나	한국전파기자국㈜
신현호 (79)원예학	이미경 (74)농화학	임용재 (67)농경제학	㈜에스씨아이	한상율 (72)농업교육
신희순 (69)잠사학	이미순 (56)농학	임용택 (54)농경제학	㈜에스씨에프	한성T&I
실험농리과학관 (82)대학원	이병근 (67)농경제학	임정목 동물생명공학 교수	㈜에스이오	한재용 (80)축산학
심용섭 (70)농업교육	이병목 (64)농생물학	장우상 (63)잠사학	㈜에이티랩	한준호 (64)임학
셀테크	이병일 (57)원예학	장진성 (78)임학	㈜에이피디	현익송 (61)잠사학
안동만 조경학 교수	이병창	장창순 (53)농경제학	㈜에코엘미디어이트	현정오 (66)농생물학
안동환 (86)농경제학	이삼희 (66)농 화학	장태평	㈜에프엔피	현진호 (88)천연섬유학
안성규 (76)임학	이상기 (79)농화학	장학균 학부모	㈜여러분의 천년초	호영하이텍
안원영 (55)임학	이상영 (65)잠사학	장휴동 (59)농경제학	㈜오리엔탈드림	홍상욱 (83)원예학
양태진 (85)원예학	이상우 (89)임학	재일동창생	㈜유원테크	홍인식 (79)원예학
양호석 (57)농화학	이상훈 (88)조경학	전창후 (83)원예학	㈜이래웰	홍종일 (80)축산학
엄기덕 (46)농화학	이석하 (78)농학	정구민 (84)축산학	㈜이지코스	홍종혁 농경제학 석사 홍준표 조부
에스엠에이엔지니어링㈜	이성우 지역정보 교수	정민섭 (59)임학	㈜장수로	화인엔터프라
에스위테크㈜	이수정 (65)농가정학	정윤희 (56)임학	㈜지이오픈	환경지도자고위과정
연은실	이승구 (66)농화학	정일영 (62)축산학	㈜지지예프바이오	황인규 (76)농생물학
염동해 (74)조경학	이승환 (80)농생물학	정중훈 (77)농공학	㈜추비로	CALSP
오기봉 (78)농 화학	이시혁 (80)농생물학	정주상 (77)임학	㈜투플러스코스팜	KBS한국방송
오평환장학금 적립금	이양호 농촌진흥청장	정진구 (65)농공학	㈜프로캘코리아	MBC문화방송
온경용 (79)원예학	이은규 (77)농학	정진화	㈜하이스	RNL생명과학㈜
우리농장	이완주 (63)잠사학	정현석 (63)농화학	㈜한국에그로바이오	
우무일 (64)임학	이용창 외 (99)생물자원공학부	정희석 (60)임학	㈜한성T&I	
우보명 (57)임학	이용환 (79)농생물학	제10기 녹색지도자최고위과정	㈜해넌테크	
우석상 (83)임학	이우신 (75)임학	제11기 녹색지도자최고위과정	㈜현우그린	
원광엠에프디㈜ (86)농화학	이인모 (65)농경제학	제연호 (86)천연섬유학	㈜IFC	
원후식 (56)농생물학	이인복 지역시스템공학 교수	조도현 서울대직원	㈜SK텔레콤	
유상렬 (78)식품공학	이장희	조민성 외 (97)농경제학사회학부	직업과정CEO 과정	
유상철 (64)축산학	이재갑	조성인 (77)농공학	진정우 학부모	
유원에코사이언스	이재진 (65)농학	조재영 (39)농학	차상석 연세대	
유원에코사이언스㈜	이전제 (70)임산가공학	조종수 (66)잠사학	창업지원센터	
유한김벌리	이정식 (69)원예학	㈜이관희 프로덕션	채수군 (54)잠사학	
윤계섭 (53)임학	이정훈 외 (2000)식물생산과학부	㈜고추와육종	채영암 (60)농학	
윤여창 (74)임학	이종영 (70)임산가공학	㈜내추로바이오텍	최고농업경영자과정	

서울대학교 농업생명과학대학 발전기금 모금에 참여해 주신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농생대 발전기금 출연안내] 농생대 교육연구재단 전화 : 02)880-4510 농생대 홈페이지 : <http://cals.snu.ac.kr>

[동문동정]

- ▶ **이상학**(농경계 75)동문이 1월 1일자로 한국농업경제학회에 임명되었다.
- ▶ **전도철**(농공학 82)동문이 1월 2일자로 농어촌공사 성주지사장에 임명되었다.
- ▶ **문제풍**(농업교육 78)동문이 1월 17일자로 예금보험공사 신입감사로 임명되었다.
- ▶ **김기선**(원예학 74)동문이 1월 22일자로 사단법인 한국잔디학회 제14대 회장으로 임명되었다.
- ▶ **권대영**(식품공학 81)동문이 2월 25일자로 한국식품연구원장에 임명되었다.
- ▶ **조완규**(농업교육 82)동문이 2월 26일자로 농협은행 강원영업본부장에 임명되었다.
- ▶ **김창현**(농업교육 79)동문이 3월 1일자로 종자협회장으로 임명되었다.
- ▶ **이석동**(천연섬유 78)동문이 3월 12일자로 현대상선 대표로 임명되었다.

[교수동정]

▶ 강병철 식물생산과학부 교수 제21회 화농상 수상

강병철 식물생산과학부 교수는 지난 12월 15일 서울대 교수회관에서 농생대 초대 학장 화농 조백현 선생의 유지를 이어 설립된 화농연합재단(이사장 이학래)에서 수상하는 제21회 화농상을 수상하였다. 화농상 수상 논문명은 Gibb's Reagent를 이용한 캡사이신노이드 간이 분석 방법이다. 화농연합재단은 우리나라 현대 농학의 선구자이며, 농업생명과학대학 초대학장을 지낸 화농 조백현 선생의 뜻에 따라 농업과학 연구와 개발에 종사하는 후학들의 연구의욕을 북돋우기 위해 매년 우수 연구 성과를 이룬 신진 학자들을 발굴, 화농상을 시상하고 있다.



▶ 양태진 교수 연구팀 인삼유전체 해독...진화 비밀 풀어

양태진 식물생산과학부 교수가 이끄는 연구팀이 인삼유전체를 해독하여 인삼 유전체는 24쌍의 염색체에 약 36억 쌍의 염기서열로 구성돼 있으며, 이는 사람의 유전체보다 크다는 것을 밝혔다. 그동안 국내 인삼 연구에서 식물학적, 유전학적 연구는 매우 어려워 주로 약리학적인 분야 위주로 수행됐다. 하지만 인삼의 생물학적 특성뿐만 아니라 유전체 분석, 인삼 관련 종들의 분류학적 다양성 등에 대한 연구가 요구되고 있다. 이번 연구는 최홍일 박사가 제1저자, 양태진 교수 교신저자로 식물연구 분야 권위 학술지인 '식물학회지(The Plant Journal)' 3월 10일자 온라인 판에 정식 게재됐다.



▶ 정종훈 바이오시스템·소재학부 교수 줄기세포 분화 촉진법 첫 개발

정종훈 바이오시스템·소재학부 교수가 이끄는 연구팀이 "줄기세포의 분화를 촉진하는 생체모방형 나노지지체

개발에 성공했다"고 밝혔다. 나노지지체란 줄기세포가 붙어서 자랄 수 있는 일종의 피부나 표면같이 생긴 구조물이며, 줄기세포를 더 빠르게 분화시킬 수 있는 방법을 세계 최초로 발견한 것이다. 이 구조물은 두께 550nm(나노미터·1nm는 10억분의 1m)의 미세한 나노 입자들이 이어진 '나노 실'이 모여 만들어진다. 연구 결과가 상용화되면 줄기세포로 뼈, 피부, 장기 등을 만드는 데 걸리는 시간을 획기적으로 단축할 수 있다. 이번 연구 결과는 지난해 12월 19일 세계적인 과학학술지 네이처의 자매지 사이언티픽리포트에 게재가 확정됐다.



▶ 최도일 식물생산과학부 교수 고추 매운맛 유전자 밝혀

최도일 식물생산과학부 교수가 이끄는 연구팀이 고추에서 매운맛이 나는 메커니즘을 국내 순수 기술로 밝혔다. 1월 20일 발표에서 고추 유전체 염기서열을 완성하는데 성공했으며, 이는 순수 한국 기술로 완성한 첫 번째 식물 유전체 염기서열 분석이다. 염기서열은 유전자를 결정하는 염기를 순서대로 붙여놓은 것으로, 결합된 순서에 따라 동·식물의 특징이 결정된다. 연구진은 고추가 원래 토마토와 비슷한 매운맛 관련 유전자를 갖고 있지만, 마지막 단계에서 토마토엔 없는 독특한 매운맛을 내는 캡사이신 합성 유전자를 보유하고 있어 고추 특유의 매운맛을 갖게 됐다고 설명했다. 또 고추가 인간보다 많은 3500Mb 규모의 거대 유전체를 지니고 있으며 가까운 관계인 토마토와 감자에 비해서도 3~4배 정도 유전체가 크다는 것을 밝혀냈다. 연구결과는 생명과학분야 학술지인 네이처 제네틱스 온라인판에 1월에 먼저 발표됐으며 또한 이 저널의 인쇄판 3월호에 표지논문으로 실렸다.



[동창회 소식]



▶ 서울대학교 농업생명과학대학 동창회 2014년 새해인사회 개최

서울대학교 농업생명과학대학 동창회에서는 1월 15일 호암교수회관 무궁화 홀에서 2014년 새해인사회를 개최하였다. 오후 4시부터 진행된 행사는 63학번 동문(대표 김훈동(농학 63))들의 주관 및 찬조로 150여 동문들이 참석한 가운데 진행되었으며, 농화학과 동창회에서는 신년교례회를 통합하여 참석하였다. 류관희 상임부회장의 사회로 진행되었으며, 이현수 동창회장은 신년사를 통하여 최근 10년간의 동창회의 변화 발전과 상록문화재단의 성장을 돌아보고 금년의 중점실행사항에 대한 관심과 격려를 부탁하였다. 이학래 학장은 축사를 통하여 동문들의 학내외 활발한 활동과 재학생 후배들의 활약을 보고하고, 노후한 시설 보완과 평창캠퍼스 및 시흥캠퍼스 발전에 대한 동문들의 관심과 격려를 요청하였다. 이어 김훈동 동문이 주관 학번 대표로 준비 과정 및 새해인사회의 의미를 설명하였고, 류관희 상임부회장이 최고령 참석자 모수미(농화학 박사) 동문을 비롯한 원로 회원들을 소개하고 선후배간의 세배를 나누었다. 또한 63학번이 조성한 장학기금을 이현수 상록재단 이사장에게 전달하였고, 환건식(농학 63) 동문의 가곡 축하공연으로 분위기는 한층 훈훈해졌다. 동문 뿐 아니라 전진광(응용생물화학 12) 학생을 비롯한 학생회 연석회의 학생 12명이 참석하여 진행을 돕고 세배를 드렸으며, 학생회 격려금을 수령하여 선후배간 끈끈한 정을 나누었다.

서울대학교 농업생명과학대학

151-921 서울특별시 관악구 관악로 1
홈페이지 <http://cals.snu.ac.kr>

※ 지역번호 (02)

학장실 T.880-4501~2 F.873-7709

교무행정실 T.880-4505~7 F.873-2009

학생행정실 T.880-4531/4508 F.873-5597

연구행정실 T.880-4910 F.873-7729

기획실 T.880-4510/4538 F.873-5579

사무행정실 T.880-4512~5 F.873-0263

입학진로보조실 T.880-4667 F.880-4668

평창그린바이오 T.(033)339-5633 F.(033)339-5547

식물생산과학부 T.880-4540

- 작물생명과학전공 T.880-4550 F.877-4550

- 원예생명과학전공 T.880-4578 F.873-2056

- 산업인력개발과학전공 T.880-4830 F.873-2042

산림과학부 T.880-4750

- 산림환경과학전공 T.880-4777 F.873-3560

- 환경재료과학전공 T.880-4780 F.873-2318

농생명공학부 T.880-4901

+ 식품·동물생명공학부 T.880-4869

- 식물생명과학전공 T.880-4850 F.873-5095

- 동물생명과학전공 T.880-4800 F.873-2271

+ 응용생물화학부 T.880-4640

- 응용생물화학전공 T.880-4650 F.873-3112

- 식물미생물학전공 T.880-4690 F.873-2317

- 곤충학전공 T.880-4700 F.873-2319

+ 바이오모래레이션전공

T.880-4907 F.877-4906

조경·지역시스템공학부 T.880-4670

- 조경학전공 T.880-4870 F.873-5113

- 지역시스템공학전공 T.880-4580 F.873-2087

바이오시스템·소재학부 T.880-4590

- 바이오시스템공학전공 T.880-4600 F.873-2049

- 바이오소재공학전공 T.880-4620 F.873-2285

농경제사회학부 T.880-4710

- 농업·자원경제학전공 T.880-4711 F.873-3565

- 지역정보전공 T.880-4740 F.873-5080

농산업교육과 T.880-4830 F.873-2042

협동과정 농업생명유전체학 T.880-4901 F.873-2039

협동과정 농림기상학 T.871-0211 F.871-0230

농장 T.(031)293-0310~2 F.(031)295-4216

학술팀 T.880-4526 F.873-2031

실험목장 (수원) T.(031)293-0313

F.(031)293-0314

(평창) T.(033)339-5901

F.(033)339-5903

수목원 T.(031)473-0071 F.(031)473-0072

농학도서관 T.880-4774~5 F.884-0182

농업생명과학연구원 T.880-4910~4 F.873-7729

농생명과학공동기기원 T.880-4845 F.888-4847

농생명과학 창업지원센터

T.(031)293-0324 F.(031)294-8527

국가농림기상센터 T.871-0234 F.871-0230

식품바이오융합연구소 T.880-4920~1 F.873-5260

식물유전체육종연구소 T.880-4930 F.873-5410

공평이병원성연구센터 T.880-4950 F.873-4950

식품안전성 및 독성연구센터

T.880-4919 F.883-4919

채소육종연구센터 T.880-4945 F.873-5410

세균의사소통학의연구단 T.880-4686 F.873-2317

농생명공학사업단 T.880-4901~2 F.873-2039

식물분자육종사업단 T.880-4978~9 F.875-4978

농업생명과학정보원 T.880-4523 F.882-7670

교육연수원 T.880-4844 F.872-8995

최고농업정책과정 T.880-4730 F.886-4898

식물병원 T.880-4697 F.880-4698

농업공학실 T.880-4619

식품공장 T.880-4824

★ 소식을 통해 알리고 싶은 소식이 있거나 구독을 원하시면 농생대 기획실(대외협력·홍보팀)
(T. 880-4510, calsweb@snu.ac.kr)로 연락주시기 바랍니다.